

적적하게 드러선 보루라습  
호로든 빛을 조차 말나 버리고

# 江邊에서 X를 생각하며

꽃이 늘든 달 신도 없어졌으니  
大地를 적시는 이 눈물 잊지 해!!  
— 내 눈물 白沙를 닮고 —

부드러운 바람은 술술

바다 저편에서 부러 오고요

十五夜 밝은 달은

소리없이 우슬 우슬한다.

X X X X X

하늘가에 직은 별들은

神秘로이 속삭이 고요

물안배 매치인이 술은

반짝 반짝 微笑합니다.

X X X X X

바다 끝은 술넝 술넝 노래 부르고

물안은 반짝 반짝 우슬 우슬하고요

水晶비 하늘에 달 우슬 우슬전만

잊지 할인 지나의 마음서 러워다.

春 波

X X X X X

친구여! 님이여!

나는 이와 같치서 러하진만

너는 홀로 푸엿에 취하였는가

우슬 우슬 달이나 하고 오러 부나.

X X X X X

밝은 달은 고요히 술속에 떠러져

외엿은 술을 논리고 있으니

그대여 나와 함께 술속에 드러가

抱擁의香氣 새어나 잠드러 버?

二九五五〇九〇十四日

# 白 鷗

푸르고 맑은 물결

하날이 강이인 듯

하얀 모래언덕

# 紅 流 洞

紅流青山 김촌곳에

바랑동에 지고드니

千佛은 白雲이요

# 公

三更 밝은 노두와

한 잠일 올제

보이는 것은

黃 性 敏

쓰다시 千里로다

여기서 갈매기 떼들

漁夫노래 조라네

박 가 는 중

牛頭는 萬整이라

이곳이 佛陀伽藍니

四弘誓願 發할수가

金 龍 鶴

벗님뿐이라

그님 손 꼭 잡고선

저나라 갔네

이상도하을신저  
그나라는노  
娑婆世界모든일  
刹那의꿈이  
만사가無常일다

# 病床의秋夜

그리담치마소  
일에일을구하니  
滿은이업서라  
못개는꿈이란  
애담기도해

金 鍾 出

病床에 쓸쓸한가을밤  
가만히.차는자최잇서  
나의가상에홀너드노나

가을은애담은노래부른다  
달알에밀네무엇을하소연하노  
오스리진慾됨으로바림은病을깨우네

# 새벽달

韓 英 錫

맑은하날 木별들은  
치음듯이 파랏케일어  
잠박잠박 아물거리고  
西쪽에걸닌 새벽달 빛겨두어

우리에 맑의노래  
넘는달 보냄이런가  
이웃집婦女 솟가시는소리  
피르음듯 찬서리우로

# 祝 一 光

鄭 載 璠

아! 一光아 一光  
너의出世하기를  
苦待苦待하다가  
오늘에너를보니

이종경김한밤에  
맑은달본것것고  
가물든나머지에  
단비가온것것다。

# 마음은홀너서

東 山 人

冊은 피어 놓은채  
우뚱하니 앓았다  
두의개를 힘없이 나려드리고  
눈을 멀거니 드고.....

권어날줄 몰은는데  
이맘은 갖엄시 홀너간다!

세벽 넘볼소리 그쳤다  
구진비만 주르륵 주르륵  
농청맛개 날어진 어둠은

울줄 몰은는 님을차차서  
어데인지 몰은는모든을 피하오  
冊을 덮혀버리고  
도우뚱하니 앓은채  
나의마음은 홀너간다!